山門서 꿈꾸고 娑婆서 이룬 三絶



강행원 작가는… 1947년 전남 무안에서 태어났다. 한때 출가하여 청화 스님 문하에서 수행했다. 동국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을 전공했으며,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장을 역임했다. 개인전 19회를 비롯해 국제전과 그룹 및 초대전 등에 400여 회 참여했다. 故 권일송의 특별 추천으로 문단에 나왔으며, 한국문학예술상, 민족정기예술상 등 다수 수상했다. 시집으로 〈금바라꽃 그 고향 그림자 여로〉 등이 이 있으며, 미술이론서 〈문인화론의 미학-그림에 새긴 선비정신 한국문인화사〉 등이 있다. (사)민족미술협회 대표, 한국불교 미술인 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포스트모던 시문학회 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산문 밖의 禪

강행원(72) 서예가 · 화가 · 시인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매일 '이뭣고'를 들고 좌복 위에 앉았지만 이내 '이뭣고'는 멀어지고 머릿속엔 온통 '붓'이다. 소식은 없고 번뇌만 인다. 그림과 서예에 대한 생각을 지우고 다시 '이뭣고'를 품어보지만 끝내 '이뭣고'는 다시 멀어진다. 어느새 마음속에서는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한다. 그때부터가 한 소식이다. 그의 '이뭣고'는 詩 · 書 · 畵, 삼절(三絶)이다. 하지만 선방 좌복 위에서 매일 삼절을 꿈꿀 수는 없는 일이었다. 매일 붓 대신 '이뭣고'를 품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결국 그는 사문의 길을 접고 산문을 나섰다. 그리고 삼절의 꿈을 향해 걸었다. 한국문인화의 새로운 길을 열고, 서예와 시를 함께 이룬 강행원이다. 그렇게 강행원의 삼절은 산문에서 시작됐다.

출가, 스승 청화 스님

"비록 사문의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사바로 돌아왔지만 제가 출가를 하지 않았다면 저는 글과 그림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청화 스님의 그늘이 없었다면 저의 삶 자체가 지금과 많이 달랐을 겁니다."

전남 무안에서 태어난 강 작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출가한다. 은사는 청화(1924~2003, 前 성륜사 조실) 스님이다. 강 작가는 청화 스님의 사촌동생이다. 강 작가와 스물네 살 차이인 청화 스님은 강 작가가 어렸을 때 출가했다. 강 작가는 청화 스님을 가까이서 보며 자랐다. 사촌형은 새로운 세계였다. 강 작가는 다른 아이들이 좀처럼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가질 수 있었다.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가까워지는 것과 같았다. 물드는 것이었다. 강 작가의 불연은 그렇게 가까워지는 것으로 시작됐다.

중학교 2학년 때 모친을 잃었던 강 작가는 고2 때 다시 부친마저 잃게 된다. 양친을 잃은 열여덟의 고등학생이 이 세상을 여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많지 않았다. 강 작가는 갑자기 많은 생각을 짊어져야 했다. 우선 학업을 이어가는 일이 가장 큰 일이었다. 강 작가는 배움이 반드시 사바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강 작가에겐 그동안 가까이서 바라본 또 다른 세계가 있었다. 그곳에도 배움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강 작가는 일찍이 알고 있었다. 강 작가의 고민은 그 또 다른 세계가 해결했다. 출가를 결심한 강 작가는 일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에게 또 다른 세계를 보여준 청화 스님을 찾아간다.

청화 스님은 해남 대흥사 진불암에 있었다. 청화 스님의 반대가 있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강 작가는 청화 스님 밑에서 머리를 깎고 행자 생활을 시작한다. 얼마 후 강 작가는 청화 스님을 따라 광주 추강사로 자리를 옮기고 그곳에서 청화 스님으로부터 사미계를 받는다. 그때 강 작가는 사바에서 마치지 못했던 학업을 다시 이어간다. 조선대부속고등학교(야간)에 복학한다. 낮에는 추강사 사미였고, 밤에는 조선대부고 학생이었다.

다시 사바로, 붓을 들다

강 작가의 불연은 여느 불연과는 조금 달랐다. 정해진 날들을 정해진 바대로 살 수 없었던 출가였다. 강 작가의 출가는 사바로 돌아오기 위한 출가였다. 강 작가의 삶에는 부처님의 글자들과 발자국이 있어야 했던 것일까. 그는 부처님의 그늘을 거쳐 다시 사바로 돌아왔다.

"큰 욕심을 지니고 생사의 문을 부숴버리는 영생의 길을 택했으나 그 큰 욕심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세간의 작은 욕심에 매달려 결국 사문을 떠나는 바보가 됐다.

강 작가는 출가한 지 10년 만에 다시 사바로 돌아온다. 하지만 출가와 마찬가지로 그의 환속 역시 여느 환속과는 달랐다. 그의 환속은 산문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산문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이었다. 강 작가가 사바로 돌아와 지금까지 산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림과 글씨를 이루기 위함이다. 비록 그는 다시 사바로 건너왔지만 그는 이미 불가의 법으로 마음을 정한 불제자였다. 세상을 따지는 이름은 필요 없었다.

강 작가는 네 살 때부터 붓을 잡았고 천자문을 시작했다. 가까운 곳에 붓이 있었고 글이 있었다. 강 작가의 부친은 서당 훈장이었다. 강 작가에게 불연이 숙연이었던 것처럼 강 작가에게 붓은 같은 숙연이었다. 지나칠 수 없는 인연이었다. 강 작가는 조선대부고에 복학하면서부터 다시 붓을 잡기 시작했다. 붓글씨를 쓰고 그림도 그렸다. 그리고 붓을 잡으면 마음속에선 시가 일었다.

"그때 청화 스님이 많이 걱정하셨죠.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충고도 주셨고요. 수행자가 부처님 공부를 우선으로 해야지 다른 것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나 한 생이 참으로 짧은 것인데, 부처님법 공부하는 출가자에게는 촌각도 아까운 것이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강 작가는 사바에서의 공부에 미련이 남아 있었다. 서당에서의 공부와 산문에서의 공부만으로는 왠지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 강 작가는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스승의 생각은 달랐다. 또 한 번 강 작가는 많은 생각 속에 놓인다. 그는 스승의 곁을 떠나기로 한다. 강 작가는 스승을 떠나 화엄사, 만경사, 두방사 등을 거치며 자신의 길을 다시 점검한다. 그리고 갈림길에 선다. 스물여덟 살이었다. 강 작가가 택한 길은 사바였다.

고2때 청화 스님 문하서 출가
10년 후 환속, 서예 본격 시작
서예 이루고 인문화로 전환
스승 없어 전국 돌며 자연사생

사바로 돌아온 강 작가의 마음속에는 온통 서예와 그림뿐이었다. 서울로 올라온 그는 서예학원을 열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서예를 시작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이에게 성과는 생각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고2 때 전남도전에서 특선(서예부문)을 경험했던 그의 글씨는 시간의 문제만 남아 있었다.

한국문인화의 새 역사

1977년 9월 8일. 강 작가는 한국문인화의 역사에 이름을 올린다. 아니 역사가 그의 이름을 적는다. '강행원 한국화사생전', 강 작가의 첫 문인화 개인전이 열렸다. 역사가 적어야 했던 큰 글씨는 '사생전'이라는 것과 '강행원'이라는 신진작가의 이름이었다.

'나의 스승은 자연'이라는 제목으로 쓰인 모 일간지 기사는 그 날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한국미술협회 회원도 못되고 74년 국전에서 서예부문 입선 1회뿐 그밖에 화가로서의 공인도 아직 받지 못한 강행원 씨(30)가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예정인 미술회관에서의 첫 전시회 준비를 위해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중략〉 그에게 있어서 그림은

B2면에 계속

INSIDE

B5~9 신년특집 채식은 방생이다
B11~13 신년특집 자비 24시
B27 사유&삶 일감 스님의 암각화 기행